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임실군, 삼락농정 실현·여성농업인 근로부담 해소·생산성 향상 기대

임실군이 전북도정의 핵심정책이 삼락농정 실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군은 '삼락농정'을 앞세운 도정에 발맞춰 2019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임실군은 삼락농정 실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 사업은 급식을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 농업인을 돕고,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미 군은 지난 해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으로 50개 마을에 약 1억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주민들은 "공동급식에 따른 지원을 군에서 해주니까, 급식에 대한 부담도 줄고 부족한 농촌일손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올해 지원사업 마을과 예산을 크게 늘렸다. 지원대상 마을 수는 54개로, 예산은 1억7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금은 마을 공동급식 추진에 필요한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를 마을 1개소당 320만원이 지원된다.

마을별 농번기를 감안하여 연간 2회 정도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은 농업인(가족포함) 20명 이상인 마을로서 마을에 공동급식장소 및 취사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마을대표가 내달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 접수된 마을은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심 민 군수는 "바쁜 농번기에 급식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농업인들

의 일손을 덜고 농사일에 함께 참여해 일손부족을 해결해 주고 있어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높다"며 "이번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은 앞으로도 농업정책을 중요시하는 전북도정의 삼락농정 정책을 맞춘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농촌에 희망을 주는 희망농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데 힘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기업 활력

순창군이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군은 최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연 15억원 규모 한도로 운영되며, 순창군 관내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지원 가능하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각각 별도로 운영된다. 시설자금은 기업당 5억원 한도로 연 4% 이자액을 보전하며, 상환기간은 5년 이내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또 운영자금은 3억원 한도로 4%의 이자액을 보전하며, 상환은 3년 이내 1년거치 2년 균등분할로 상환한다. 특히 지난 1일 중소기업 중앙회가 조사한 '2019년 중소기업 경기전망 및 경영환경'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경도지수가 80.9로,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향후 경기전망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자금지원이 순창군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영개선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군은 중소기업들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31일까지 순창군 관내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근로환경과 복지편의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개 보수 지원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군 설주원 경제교통과장은 "대 내외 경기여건 악화 등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좋지 않아 관련 지원책 마련책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환경개선사업, 청년 신중년 취업지원 등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며 관내 기업체들에게 당부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임실N양념산업 육성사업 워크숍 개최

임실군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임실N양념산업 육성사업'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임실엔양념마을사업단, 농가, 임실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양념산업의 지속적인 사업화 및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임실N양념산업육성사업'은 우리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임실고추와 양파, 생강 등 양념채소를 활용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아울러 식감과



맛이 우수한 절임 배추를 활용한 김장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사업으

로 추진하고 있다. 농업의 6차산업화 대표 우수사례인 임실치즈테마파크 견학 및 치즈체험을 통해 농산물 생산, 가공, 체험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배우고 농업현장에서 체험관광을 접목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심민 임실군수는 "농촌의 고품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 양념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양념산업육성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오수에서 '대한민국 의로운 반려동물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의로운 반려동물 대상 제정 및 시상

임실군 오수에서 의견문화제전위원회 업무협약

반려견의 성지 오수에서 '대한민국 의로운 반려동물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반려견의 성지 임실군 오수에서 개최되는 제43회 의견문화제를 앞두고 의견문화제전위원회(위원장 이강년)와 한국 애견신문(대표 박태근) 간에 업무협약을 맺고 '대한민국 의로운 반려동물 대상'을 제정하고 매년 시상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의로운 반려동물대상'은 인간에게 충실하고 탁월한 탐색능력을 보유한 동물로서 산사태, 지진, 건물붕괴 등 위험한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구조하는데 혁혁한 공로가 있는 경찰견, 소방견 등을 비롯, 귀감이 될 수 있는 반려동물들의 미담 사례들을 발굴 또는 추천을 받아 매년 의견문화제를 통하여 시상 할 계획이

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를 올바르게 선도하고 오수개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발전시키는데 상호 큰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의견문화제는 분공등 오수개의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가치를 통해 반려동물 문화 중심지로 승화 발전 시키고자 하는 취지이다. 올해 34회제인 의견문화제는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오수 의견공원에서 전국의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들을 자랑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대한민국 의로운 반려동물 대상' 시상식은 5월 4일 의견문화제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최선

남원시가 가로등·보안등 고장신고 민원을 24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 해결하며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남원시는 그동안 가로등과 보안등 수리를 전기직 공무원이 전담해왔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기수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적어 안전사고 발생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왔다. 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수리는 전기업체에 의뢰하는 단계를 거치다 보니 보수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고 수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 되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에 남원시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운봉 아영 인월 산내 동부 권역과 시내권역, 금지 대강 등의 서부권역으로 나누어 시범적으로 전문 전기업체에서 유지 보수를 맡겼으며,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안전

사고는 줄어든다고, 평균 5일 소요되었던 고장수리 기간은 하루로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남원시는 가로등 유지보수 위탁업무가 정착되면 현재 2팀 4명 인 긴급보수반 중 2명을 인력이 부족한 사업부서로 배치해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예정이며, 올해 농촌 가로등 200등, 도시가로등 80등을 신설하고 노후 가로등 350등은 순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이다.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해 현재 19%에 그친 LED등을 올해와 내년에 각각 5,000등을 설치, 100% LED등으로 교체해 등의 수명연장과 전기료를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예산이 소모되더라도 모니터링을 통해 고장난 가로등을 신속히 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시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청소년기관 워크숍

남원시는 23일 청소년사업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기관 워크숍을 갖고 시대흐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앞장서기로 했다. 남원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시 청소년담당부서와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표자 및 실무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청소년관련 업무 실무자들이 업무공유를 통해 소통하고 역할분담을 논의하는 등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난해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청소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청소년 정책 변화 필요성에 발맞춰 실무자들이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 또한 자유학기제에 발맞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이 상호연계하여 진로체험사업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며, 청소년유관기관 협력망을 구축해 관내 청소년을 위한 신규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노경희 여성가족과 과장은 "관내 청소년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청소년들의 시각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며 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화재안전

특별조사 대책회의

남원소방서는 23일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추진관련 점검 및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화재안전특별조사단의 건의사항 및 조사 시 민원인 응대요령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밀양화재 등 대형 화재를 계기로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의 화재안전관리 실패와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건물주 및 관계인의 책임의식을 제고하여 건축물 안전 강화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변기호 방호구조과장은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를 추진 중에 있다며, 건물주 및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